

## 초등학생의 성에 따른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간 차이, 관계 및 영향력 비교

A Comparison of the Differences, Relationships and Impacts  
between the Self-Concept and Career Development  
for Elementary Schoolers by gender

김지영(Kim, Ji Young)\* · 서영숙(Suh, Young Sook)\*\*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성에 따른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간 차이, 관계, 및 영향력을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생 259명(남학생 133명과 여학생 126명)이다. 본 연구를 위해 활용한 측정도구는 정종진(1996)의 자아개념 검사도구와 안창규·안현의(2006)의 Holland 진로발달 검사도구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분석하면: (1) 정서적 자아에서 남학생( $M=54.857$ ,  $SD=7.593$ )이 여학생( $M=52.302$ ,  $SD=8.908$ )보다 높았다. (2) ① 직업적성평견에서 여학생( $M=42.200$ ,  $SD=5.918$ )이 남학생( $M=37.372$ ,  $SD=7.600$ )보다 높았다. ② 자율성에서 남학생( $M=36.544$ ,  $SD=5.544$ )이 여학생( $M=35.008$ ,  $SD=5.118$ )보다 높았다. (3) 자아개념은 남학생( $r=.175\sim.761$ )과 여학생( $r=.199\sim.667$ )의 진로발달과 정적상관관계를 가졌다. (4) ① 학업적 자아는 남학생(5.6%~56.3%)과 여학생(8.4%~48.7%)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② 사회적 자아는 남학생(2.6%~5.9%)과 여학생(2.7%~4.3%)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③ 정서적 자아는 남학생(1.9%~37.0%)과 여학생의(11.2%)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④ 신체적 자아는 남·여학생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이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초등학생, 성, 자아개념, 진로발달

\* 제1저자(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수료, k jy3363@hanmail.net

\*\* 공동저자: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I. 서 론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과 조건이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각자 처한 현실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한 가지 기준으로 정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자들은 기쁨이나 만족감의 긍정적인 상태 혹은 '주관적인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 행복의 핵심요소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이남석, 2008). 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거나 실현했을 때, 즉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인간은 누구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관적 행복감은 '자신을 정의하고 다른 사람과 구분된다고 믿게 하는 속성, 능력, 행동, 태도, 그리고 가치의 조합(Kostelnik, Whiren, Soderman, Stein, & Gregory, 2005)'이라 할 수 있는 자아개념(self-concept)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인간은 자신이 가장 잘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직업(또는 일)에서 얻는 성취감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느끼는 경향이 강하다.

직업(vocation)이란, 생활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매일 해야 하는 일(교학사출판부, 2009), 또는 개인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 및 사회활동의 종류(중앙고용정보원, 2003)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뿐 만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직업은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조건이면서, 개인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지속시키고, 자아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으로서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평생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으며, 직업의 성격도 폭넓은 지식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개인의 사적인 세계를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 연결시키는 능력(Collin & Watts, 1996)을 키워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올바른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진로(career)란 어떤 하나의 직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직업과 관련된 개인이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일의 총체로서 생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장원섭, 2006). 그러나 진로발달(career development)은 개인이 평생 동안 수행하게 되는 일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교육적, 물리적, 경제적, 우연적 요인 등의 발달과정(Isaacson & Brown,

2000; Zunker, 2002)으로, 청소년기나 성인기와 같은 진로선택의 긴급성을 요구하는 시기에만 집중하여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기 때부터 발달이 시작된다(이종범, 2005). 따라서 아동기에 진로발달 과업을 제대로 달성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입시와 취업을 위해 이루어지던 진로교육이 정규교육 시작단계인 초등학교 시기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진로교육의 목적은 학생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탐색, 발견하고 이를 최대한으로 개발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학생이 자기에게 적합한 직업에 대한 포부를 갖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준비를 하도록 하는데 있다(이현림, 2007). 또한 진로교육은 발달과정에 따라 진로 인식(awareness), 탐색(exploration), 준비(preparation), 동화(assimilation)단계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아동은 진로 발달단계에서 가장 초보단계인 진로인식단계(career awareness)에 속한다(Brolin, 1995). 이 단계에서는 주로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의 역할, 사회에서의 일이 갖는 역할과 의미, 사회적 행동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 등에 대해서 학습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김봉환·정철영·김병석, 2006).

진로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진로교육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아동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개인의 소질, 흥미(관심), 연령, 성, 지능, 학업성취(도), 가정·사회·문화적 환경, 자아개념 등 매우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의 자아개념(self-concept)에 부합하는 직업이미지(image of occupation)를 가지고 있는 직업을 선호하므로, 자아개념의 핵심적인 요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직업은 강하게 거부된다(신선미·민무숙, 2004). 이처럼 개인행동의 결정요인으로 자아개념의 중요성이 강조(Herr, Cramer, & Niles, 2003; Isaacson & Brown, 2000)되고 있으므로 자아개념과 진로발달의 상관관계와 영향을 밝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동안 이루어졌던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 주제를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초등단계에서의 진로발달의 개념을 진로성숙(career maturity), 진로의식(career consciousness), 진로의식성숙(career consciousness maturity), 진로태도발달(career attitude development), 진로인식(career awareness) 등의 용어로 설명하였는데, 각각 다른 용어상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진로선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정의적 특성의 동일 연령층에서의 상대적 위치로서 보다 일관되고 확실하며 현실적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는 Crites(1978)의 진로성숙(career maturity)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성별, 연령,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검증하거나, 진

로지도·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에 집중되어 왔다(이종범, 2005). 즉 지금까지의 국내·외 선행연구들(김옥한, 2001; 박철수, 1998; 신철, 1997; 유미숙, 2000; 이경애, 2001; 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2001; Phipps, 1995)에서는 대부분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 관련 요소와 진로성숙의 상관관계와 영향 및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의 상관관계와 영향을 비교·분석하여 초등학교 아동의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경험이나 훈련과는 상관없이 유전적 기제의 작용에 의해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생물학적 발달을 의미(강문희·김매희·유정은, 2008)하는 성숙과 기본적으로 성장과 학습 과정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이종범, 2005) 발달은 구별된다. 다시 말해 '진로선택의 준비도(readiness)에 대한 동일 연령층에서의 상대적 위치'로 규정할 수 있는 진로성숙(career maturity)의 개념으로, '초등학교시기에 진로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발달과정으로 자신과 일의 세계와 관한 기본적인 인식을 토대로 진로인식·탐색·계획과 관련된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이종범, 2005)'으로 규정되는 초등학생 진로발달(career development)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이 성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권혁본, 2001; 김옥한, 2001; 신철, 1997; 유미숙, 2000; McNair & Brown, 1983; Phipps, 1995)과 성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장은미, 1996; 채유경, 2003; Bames, 2001; Holland, 1981)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자아개념과 진로성숙의 개념이 아닌 진로발달이 성과 관련이 있는지, 성과 관련이 있다면 발달 정도, 상관관계 및 영향력에서 성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성에 따른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간 차이, 관계 및 영향력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초등학생의 진로발달과 관련된 연구 대상이 5학년과 6학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연령에 따른 진로발달 수준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볼 때 10~12세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수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 초등학교 기반의 진로관련 학습의 중핵교과인 실과교과를 5~6학년 학생들이 배운다는 점(이종범, 2005)을 고려하여, 직업에 대한 지식과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발달되기 시작하는 10~11세에 해당하는 (Stockard & McGee, 1990) 초등학생 중 상급학교(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자신의 미래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있는 6학년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현장에서 남·여학생의 성을 배려한 진로교육과 진로지도가 이루어져 초등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계획·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초등학생의 성에 따른 자아개념 발달 정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초등학생의 성에 따른 진로발달 정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초등학생의 성에 따른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간 상관관계의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초등학생의 성에 따른 자아개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은 경남 J시에 위치한 'A'초등학교 6학년 전체 8개 반 259명(남학생 133명, 여학생 126명)이다. 연구대상 가정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월수입이 2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인 가정이 가장 많았다. 부모의 연령은 40대가, 부모의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이 중류층 가정의 아동들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9년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15일간 실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첫째, 본 연구자가 2009년 12월 6일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 내용, 진행 방법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둘째, 본 연구자가 2009년 12월 8일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검사지를 전달하였다. 셋째, 6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급의 담임교사가 2009년 12월 15일 진로발달 검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6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급의 담임교사가 2009년 12월 16일 자아개념 검사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자가 2009년 12월 20일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검사지를 회수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259)

변 인		구 분		인원(N)	백분율(%)
연 구 대 상	성별(학년)	남자(6학년)		133	51.35
		여자(6학년)		126	48.65
가 정 의 경 제 수 준		상(월수입 400만 원 이상)		23	8.88
		중(월수입 2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216	83.40
		하(월수입 200만 원 미만)		20	7.72
연 구 대 상 의 가 정 적 특 성	부 모 의 연 령	부	30세~39세	26	10.04
			40세~49세	218	84.17
			기타	15	5.79
	부 모 의 학 력	모	30세~39세	96	37.07
			40세~49세	152	58.69
			기타	11	4.25
부 모 의 학 력	부	고등학교 졸업	95	36.68	
		전문대학 졸업 이상	146	56.37	
	모	기타	18	6.95	
		고등학교 졸업	117	45.14	
		전문대학 졸업 이상	128	49.42	
		기타	14	5.41	

### 3.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활용한 검사 도구는 '표준화 검사(standardized test)'이다. 표준화검사는 누가 사용하더라도 검사의 실시와 채점, 결과의 해석이 동일하도록 모든 절차와 방법을 일정하게 만들어 놓은 검사로서 전문가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있고, 검사의 실시와 채점을 위한 검사실시요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연령과 배경이 비슷한 다른 아동들과의 성취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김지영, 2008).

#### 1) 진로발달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발달 검사도구는 전 세계적으로 진로지도와 상담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Self-Directed-search(SDS) 검사를 저작권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안창규·안현의(2006)가 공동 제작하여 표준화시킨 초등학생용 'Holland 진로발달검사'이다. 이 검사지는 진로발달이론에 입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들의 진로 의식, 진로발달과 진로성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이다. 이 검사 도구는 총 2부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진로발달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제1부 진로성숙도검사 중 신뢰도 계수가 낮은 '진로선택의 합리성'을 제외한

Cronbach a계수 .64~.85(초등 6학년)에 속하는 ‘진로지향성’, ‘직업의 이해’, ‘직업적 성편견’, ‘자기이해’, ‘자율성’, ‘자긍심’ 총 60문항을 사용하여 검사도구로 활용하였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 수와 구체적인 측정내용 및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진로발달’ 검사의 하위요인별 측정내용과 문항 수

하위요인 (문항 수)	측정 내용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진로지향성(10)	장래 진로에 대한 전망을 가지거나 진로탐색을 함으로써 진로의식을 가지는 정도	.807
직업의 이해(10)	평소 직업 세계에 대해 이해하거나 이해하려는 정도	.804
직업적성편견(10)	직업에 대한 남녀 성차별과 편견을 가지는 정도	.815
자기이해(10)	진로를 위해 자신의 심리적 특성을 스스로 이해하는 정도	.808
자율성(10)	진로탐색이나 학업수행에 있어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 자율성을 가지는 정도	.810
자긍심(10)	적응적 과정에서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정도	.808
전체(60)		.811

## 2) 자아개념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개념 검사도구는 정종진(한국적성연구소, 1996)이 개발하여 표준화시킨 초등학생용(초2-6학년) 자아개념 검사이다. 이 검사도구의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 구인 타당도가 적절한 것으로 검증되었고, Cronbach a계수 .82~.95로 신뢰도 또한 비교적 만족스러운 것으로 검증되어진 자아개념 검사도구이다(김지영, 2008). 각 하위요인별 문항 수와 구체적인 측정내용 및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자아개념’ 검사의 하위요인별 측정내용과 문항 수

하위요인(문항 수)	측정 내용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학업적 자아(20)	자신의 능력과 학업에 대한 지각·평가 정도	.801
사회적 자아(20)	자신의 중요 타인인 부모, 교사, 또래와의 인간관계에 대한 지각·평가 정도	.804
신체적 자아(20)	자신의 외모, 운동 능력에 대한 지각·평가 정도	.812
정서적 자아(20)	자신의 정서적 반응성, 이상성, 도덕성, 성격에 대한 지각·평가 정도	.803
전체(80)		.805

####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Program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각 변인들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한 뒤,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진로발달을 종속변인으로, 자아개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초등학교의 성에 따른 자아개념 차이

남·여 초등학교의 자아개념 하위요인별 t검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초등학교의 성에 따른 자아개념 차이

변 인	남(N=133)		여(N=126)		p	t
	M	SD	M	SD		
학업적 자아	52.751	9.322	52.168	8.389	.601	.524
사회적 자아	57.155	7.586	57.512	7.850	.713	.369
신체적 자아	49.798	7.079	48.384	6.880	.108	1.614
정서적 자아	54.857	7.593	52.302	8.908	.013	2.189*
자아개념 전체	214.480	24.392	211.014	26.478	.343	.950

\*p < .05.



학업적 자아, 사회적 자아, 신체적 자아, 자아개념 전체에서는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남학생(M=54.857, SD=7.593)이 정서적 자아에서 여학생(M=52.302, SD=8.908) 보다 통계적( $t=2.189$ ,  $p<.05$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 2. 초등학생의 성에 따른 진로발달 차이

남·여 초등학생의 진로발달 하위요인별 t검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초등학생의 성에 따른 진로발달 차이

변인	남(N=133)		여(N=126)		p	t
	M	SD	M	SD		
진로지향성	38.861	7.139	37.217	7.164	.068	-1.835
직업의 이해	32.544	6.978	31.410	6.635	.186	-1.327
직업적성편견	37.372	7.600	42.200	5.918	.000	-5.636***
자기이해	35.208	5.965	33.791	6.160	.064	1.862
자율성	36.544	5.544	35.008	5.118	.023	-2.296*
자긍심	34.608	6.720	33.388	6.087	.130	1.518
진로발달 전체	213.827	28.190	215.944	27.602	.114	1.588

\* $p < .05$ . \*\*\* $p < .001$ .

진로지향성, 직업의 이해, 자기이해, 자긍심, 진로발달 전체에서는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학생(M=42.200, SD=5.918)이 직업적성편견에서 남학생(M=37.372, SD=7.600)보다 통계적( $t=-5.636$ ,  $p<.001$ )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남학생(M=36.544, SD=5.544)은 자율성에서 여학생(M=35.008, SD=5.118) 보다 통계적( $t=-2.296$ ,  $p<.05$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 3. 초등학생의 성에 따른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간 상관관계 차이

남·여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6>과 같다.

<표 6> 초등학생의 성에 따른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간 상관관계

변인	성별	N	학업적 자아	사회적 자아	신체적 자아	정서적 자아	자아개념 전체
진로지향성	남	133	.546**	.388**	.175*	.316**	.490**
	여	126	.435**	.304**	.264**	.272**	.405**
직업의 이해	남	133	.550**	.446**	.242**	.326**	.535**
	여	126	.497**	.376**	.335**	.338**	.480**
직업적성편견	남	133	.437**	.368**	.189*	.303**	.444**
	여	126	.291**	.199*	.021	.093	.168
자기이해	남	133	.572**	.407**	.252**	.332**	.528**
	여	126	.595**	.498**	.400**	.409**	.587**
자율성	남	133	.588**	.485**	.298**	.442**	.610**
	여	126	.608**	.448**	.294**	.418**	.543**
자긍심	남	133	.491**	.481**	.330**	.608**	.634**
	여	126	.660**	.534**	.518**	.659**	.731**
진로발달 전체	남	133	.750**	.605**	.345**	.543**	.761**
	여	126	.698**	.525**	.435**	.506**	.667**

\*p < .05. \*\*p < .01.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하위요인들 간 상관관계수에서 남학생( $r=.175 \sim .608$ )은 모두 유의수준  $p<.05$  이상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여학생( $r=.199 \sim .660$ )도 대부분 유의수준  $p<.05$  이상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신체적 자아( $r=.021$ ), 정서적 자아( $r=.093$ ), 자아개념 전체( $r=.168$ )와 직업적성편견 간 상관관계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자아개념 전체와 진로발달 전체에서는 남학생( $r=.761$ ,  $p<.01$ )이 여학생( $r=.667$ ,  $p<.01$ ) 보다 다소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 4. 초등학생의 성에 따른 자아개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

남·여 초등학생의 자아개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인들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진단하기 위한 공차한계는 0.1이상, VIF는 10이하로 독립변인들 간 상관이 문제가 될 정도로 높지 않았다. 다시 말해, 독립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어 분석에 투입할 수 있었다.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초등학생의 성에 따른 자아개념과 진로발달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성별	N	모형	독립변인	B	Beta	R <sup>2</sup>	R <sup>2</sup> 증가	F	t
진로지향성	남	133	1	학업적 자아	.419	.546	.298	.298	53.883***	7.341***
	여	126	1	학업적 자아	.370	.435	.189	.189	28.663***	5.354***
직업의 이해	남	133	1	학업적 자아	.392	.550	.303	.303	55.134***	7.425***
			2	학업적 자아	.311	.436	.336	.033	31.823***	5.091***
		2	사회적 자아	.187	.214	2.497*				
	여	126	1	학업적 자아	.413	.497	.247	.247	40.261***	6.345***
			2	학업적 자아	.341	.410	.274	.027	23.002***	4.716***
		2	사회적 자아	.189	.186	2.139*				
직업적성편견	남	133	1	학업적 자아	.356	.437	.191	.191	29.896***	5.468***
			2	학업적 자아	.274	.336	.216	.026	17.383***	3.608***
		2	사회적 자아	.190	.189	2.033*				
	여	126	1	학업적 자아	.205	.291	.084	.084	11.338**	3.367**
자기이해	남	133	1	학업적 자아	.378	.572	.327	.327	61.614***	7.849***
			1	학업적 자아	.423	.595	.353	.353	67.254***	8.201***
	여	126	2	학업적 자아	.327	.460	.396	.043	40.002***	5.475***
			2	사회적 자아	.187	.246				2.932**
자율성	남	133	1	학업적 자아	.323	.588	.345	.345	66.952***	8.182***
			2	학업적 자아	.252	.456	.387	.042	39.777***	5.577***
		2	사회적 자아	.163	.241	2.932**				
	여	126	1	학업적 자아	.402	.608	.370	.370	72.142***	8.494***
자긍심	남	133	1	정서적 자아	.477	.608	.370	.370	74.565***	8.635***
			2	정서적 자아	.380	.485	.426	.056	46.706***	6.360***
		2	학업적 자아	.174	.267	3.499**				
	여	126	1	학업적 자아	.529	.660	.436	.436	95.096***	9.752***
2			학업적 자아	.334	.417	.548	.112	73.824***	5.531***	
	2	정서적 자아	.317	.413	5.484***					
진로발달 전체	남	133	1	학업적 자아	2.188	.750	.563	.563	163.754**	12.796**
			2	학업적 자아	1.742	.597	.623	.059	103.955**	9.248**
				2	사회적 자아	1.031				.288
				3	학업적 자아	1.616	.554			
		3	사회적 자아	.795	.222	.642	.019	74.716**	3.261**	
		3	정서적 자아	.592	.169				2.598*	
	여	126	1	학업적 자아	2.342	.698	.487	.487	116.940**	10.814**
			2	학업적 자아	1.967	.586	.517	.029	65.219**	7.803**
	2	사회적 자아	.733	.205	2.722**					

\*p < .05. \*\*p < .01. \*\*\*p < .001.

여학생의 진로발달 하위요인 모두에 학업적 자아(8.4%~37.0%)가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도 진로지향성, 직업의 이해, 직업적성편견, 자기이해, 자율성 발달에서는 여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업적 자아(19.1%~34.5%)가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긍심 발달에는 정서적 자아(37.0%)가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발달 전체에 자아개념이 미치는 영향력은 남학생(학업적 자아 56.3% 사회적 자아 5.9% 정서적 자아 1.9%, 총 64.2%)이 여학생(학업적 자아 48.7%, 사회적 자아 2.9%, 총 51.7%)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59명(남학생 133명, 여학생 126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생의 성에 따른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간 차이, 관계 및 영향력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여학생은 학업적 자아, 사회적 자아, 신체적 자아에서는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정서적 자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여학생의 자아개념 인식 정도가 월등히 높으리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정서적 자아개념에서만 여학생의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이운숙(2002)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는 옥외활동 및 또래와 함께 놀기를 좋아하는데 반해, 여아는 집안에서 부모와 얘기를 하거나 TV를 보거나 자기 방에서 혼자 조용히 노는(정옥분, 2006) 것을 선호하는 남·여의 성향 차이 때문이라고 본다. 즉,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다양한 옥외활동과 친구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서적 반응성, 이상성, 도덕성, 성격에 대한 지각과 평가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서적 자아를 발달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둘째, 남·여학생은 진로지향성, 직업의 이해, 자기이해, 자긍심에서는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직업적성편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자율성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진로발달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한 최보윤(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6학년(만 11세 전후) 학생 중 성별에 따라 잘 할 수 있는 직업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남학생의 30.5%, 여학생의 15.9%로 나타난 선행연

구(신선미·민무숙, 2004)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의 성 평등에 대한 교육적·사회적·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진로와 직업에 대한 직업적성편견이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월등하게 발달되어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미성숙한 초등학생이라는 상황과 제약으로 인한 특수한 경우들이 생기지만 남학생의 경우는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특성을 여학생 보다 많이 가지고 있기(류성기, 2003) 때문에, 즉 초등학교 남학생의 타율적이기 보다는 독립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성향이 강한 특성으로 인해 여학생 보다 자율성이 발달되었다고 본다.

셋째, 남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하위요인들 모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여학생도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하위요인들에서 대부분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아와 진로가 상관을 갖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신철, 1997; 이은경, 2001; 정채기, 1995; 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2001; Gati, Krausz, & Osipow, 1996; McNair & Brown, 1983)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진로발달의 과정이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고 보완해 가는 과정(이현림·주문자, 2007)이므로, 진로발달은 긍정적인 자아개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들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장점을 발굴하는 활동들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찾는 일에도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이현림·주문자, 2007). 따라서 초등학생에게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발달시킬 수 있는 진로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 계획, 결정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아개념과 진로발달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달되어 갈 것이라 본다. 그러나 여학생의 자아개념 전체와 신체적 자아, 정서적 자아는 직업적성편견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초등학생들(76%)은 성별에 따라 잘 할 수 있는 직업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민무숙·서우석·구정화·신선미, 2003), 특히 여학생은 직업적성편견이 매우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인식과 여성적 정서가 자신의 진로 또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더 이상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넷째, 여학생의 진로지향성, 직업의 이해, 직업적성편견, 자기이해, 자율성, 자율성 발달에는 모두 학업적 자아가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남학생의 진로지향성, 직업의 이해, 직업적성편견, 자기이해, 자율성 발달에도 학업적 자아가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진로성숙과의 관계에서 가장 영향이 큰 자아개념은 학문적 자아라고 보고한 이은경(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학업적 자아'와 관련을 갖는 학업성취도 또는 학업성적이 진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선행연구들(송현순, 1998; 유미숙, 2000; Kelly,

1993)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다른 발달과 마찬가지로 진로발달도 인지능력이 발달된 아동일수록 특정 교과나 공부 전반에 관한 지각(송인섭, 1989)이 발달된 초등학교생일수록 직업의 종류와 역할 그 이외 다양한 직업 정보에 대한 학습능력과 이해도가 발달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진로인식 단계에 있는 초등학교 아동들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학습활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일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Zunker, 2002). 이러한 이유로 진로를 독립된 교과로 가르쳐야 한다(장석민, 2001)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부족,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 초등학교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할 전문가 부족 및 관련 기관 결여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에서 진로를 하나의 독립된 교과로 가르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진로교육을 특정 교과나 지식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관련성을 갖고, 일과 직업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진로교육과 진로지도가 이루어진다면 초등학교생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습자가 학습 자극에 흥미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변영계, 2005). 그러므로 단순히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수업형태의 학습활동이 아니라 초등학교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와 놀이 등을 활용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초등학교생들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초등학교생들이 학습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수한 학업성적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학업성적이 진로선택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남과 다른 자신만의 소질과 관심, 흥미를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는 진로교육이 제공된다면 학업적 자아가 상대적으로 낮은 초등학교생들의 진로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남학생의 자긍심 발달에 정서적 자아가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과 여학생의 자긍심 발달에도 학업적 자아 다음으로 정서적 자아가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아개념을 상·중·하로 나누어 자아개념이 중집단인 경우에 정서적 자아개념이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김지연(2000)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보편적 정서 때문이라고 본다. 즉, 자기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자긍심의 발달은 자신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좋은 진로' 또는 '성공한 직업'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본다. 특히 남학생의 자긍심에 정서적 자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성역할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문화적 기대 때문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남

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직업(일)을 가져야 하지만, 여자는 선택적으로 직업(일)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한국적 정서’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직업이 생계유지 수단인 동시에 자아실현의 목적을 가지는 활동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진로교육과 진로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섯째, 사회적 자아는 남학생의 직업의 이해, 직업적성편견, 자율성발달에 영향을 미쳤으며, 여학생의 직업의 이해, 자기이해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된 형윤주(2005), 사회적 자아가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주문자(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진로발달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는 사회적 자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본다. 직업이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적 활동인 동시에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이므로, 자신의 중요 타인인 부모, 교사, 또래 집단과의 인간관계와 사회적 상황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과의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자아를 발달시킬 수 있는 진로교육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곱째, 신체적 자아는 남·여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자아가 초등학생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한 김지현(2008), 이은경(1996), 주문자(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일(직업)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신체적 요소에 대한 인식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직업정보, 즉 직업의 역할, 수입, 필요한 교육 등과 더불어 일(직업)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신체적 요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특별한’ 신체조건을 필요로 하는 직업도 있지만, 반드시 ‘신체적 결함’이 ‘직업적 결함’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시킬 수 있는 진로지도가 더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간 관계에서 높은 상관관계 보였으며, 자아개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자아개념과 진로발달이 높다는 선행연구들(권혁본, 2001; 김옥한, 2001; 신철, 1997; 유미숙, 2000; McNair & Brown, 1983)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지만,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자아개념과 진로성숙의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된 이경애(2001), 이은경(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연구내용에서 다소 차이를 갖지만 여학생 보다 남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된 박철수(1998), 박부녀(2008)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여학생 보다 일과 직업에 대한 남학생의 높은

관심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일의 세계에 대한 인지과정 및 인지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의 인식과 관련해서도 일의 종류 및 선택조건, 직업인식의 시기, 그리고 장래 진로문제에 대한 결정 등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박철수, 1998)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남학생에게는 일과 직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여학생에게는 일과 직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진로교육과 진로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연구결과 분석에 따른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여학생은 정서적 자아, 직업적성편견, 자율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결과들(이윤숙, 2002. 최보윤, 2008)과 일치하지 않은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회적·문화적·교육적 영향과 남·여의 성향에 기인한 차이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는 진로와 관련된 건강한 자아상(self-image)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Angela, Kerry, Kris, & Kim, 2006)로, 초등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Super(1957, 1990)에 이론에 의하면, 진로발달의 과정은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고 보완해 가는 과정이며, 타고난 적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기회, 역할수행의 결과가 부모, 교사 및 중요한 타인의 승인을 얻는 정도에 따라, 상호작용의 결과에 의하여 나타난 자아개념 속에서 야기되는 타협의 과정(이현림·주문자, 2007)이다. 따라서 자아개념을 고려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아가 진로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지식 및 기능의 제공(Herr., Cramer, & Niles, 2003)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특정 교과나 지식과 관련된 진로교육이 아닌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관련성을 갖는 진로교육을 통해 진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여학생의 모든 진로발달에 학업적 자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반면, 남학생의 자긍심 발달에는 정서적 자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한국적 정서'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자아개념과 진로발달이 성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권혁본, 2001; 김옥한, 2001; 신철, 1997; 유미숙, 2000; McNair & Brown, 1983; Phipps, 1995)이 다소 우세하지만, 성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장은미, 1996; 주문자, 2002; 채유경, 2003; Bames, 2001; Holland, 1981, Stockard & McGee, 1990)도 적지 않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들(권혁본, 2001; 김옥한, 2001; 신철, 1997; 유미숙, 2000; McNair & Brown, 1983)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자아개념과 진로발달이 높다



고 하였으나, 본 연구와 박철수(1998), 이경애(2001), 이은경(1996)의 연구결과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초등학생의 성에 따른 자아개념과 진로발달에 관한 일관되지 않은 선행연구결과들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떠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성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성에 따른 효과적인 진로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지역 한 곳의 초등학생 25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를 가진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현실적인 진로인식이 구체화되는 시기(Hartung, Porfeli, & Vondreck, 2004)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중 6학년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모든 발달과 마찬가지로 진로인식도 초기 아동기부터 시작되므로(Magnuson & Starr, 2000),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의 관계와 영향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셋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중 자아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모든 발달이 한 가지 변인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듯이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소질, 흥미(관심), 연령, 지능, 학업성취(도), 신체조건, 가정·사회·문화적 환경, 또래관계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갖는 '진로선택의 준비도(readiness)에 대한 동일 연령층에서의 상대적 위치'로 규정할 수 있는 진로성숙(career maturity)의 개념이 아닌, '초등학교시기에 진로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발달과정으로 자신과 일의 세계와 관한 기본적인 인식을 토대로 진로인식·탐색·계획과 관련된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이종범, 2005)'의 개념으로 규정되는 초등학생의 진로발달(career development)과 자아개념 간 차이, 관계 및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강문희·김매희·유정은(2008). **아동발달론**. 서울 : 공동체.
- 교학사출판부(2009). **표준 국어사전**. 서울 : 교학사.
- 권혁본(2001). 자아개념 및 가정환경이 초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정철영·김병석(2006). **학교진로상담(2판)**. 서울 : 학지사.
- 김옥한(2001). 초등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분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연(2000). 아동의 진로의식 성숙도와 자아개념 및 가정환경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2008). 놀이를 활용한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 4(2)**, 1-20.
- 김지현(2008). 아동의 자아개념 및 학습동기와 진로성숙간의 관계.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성기(2003). 남학생과 여학생 대화 언어의 생태와 지도 방법. **한국초등국어교육, 22**, 195-236.
- 민무숙·서우석·구정화·신선미(2003). **초등학생용 양성평등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총론)**.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박부녀(2008). 초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인식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철수(1998). 초등학교 학생의 진로인식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영계(2005). **교수-학습 이론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송인섭(1989). **인간 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학지사.
- 송현순(1997). 진로성숙에 관련된 변인에 관한 메타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선미·민무숙(2004). 성별에 따른 초등학생의 직업선호 분석. **한국교육, 31(3)**, 1-24
- 신철(1997). 초등학교 아동의 진로인식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창규·안현의(2006). **홀랜드 진로발달검사**. 서울 : 한국가이던스.
- 유미숙(2000).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진로성숙도와 개인배경 변수와 관계. 연세대

-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애(2001).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남석(2008). **무삭제 심리학**. 서울 : 예담.
- 이윤숙(2002).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인식의 관계.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1996).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범(2005). 초등학생 진로발달 검사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림(2007). **진로상담**. 서울 : 양서원.
- 이현림·주문자(2007).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도가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2), 181-191.
- 장석민(2001). **진로교육목표 및 내용 체계화 연구**.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원섭(2006). **일의 교육학**. 서울 : 학지사.
- 장은미(1996).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2006). **사회정서발달**. 서울 : 학지사.
- 정종진(1996). **자아개념 진단 검사지 및 실시요강**. 서울 : 한국적성연구소.
- 정채기(1991).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및 내·외 통제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문자(2002).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도가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중앙고용정보원(2003). **한국직업사전**. 서울 : 중앙고용정보원.
- 채유경(2003). 초등학생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상담학 연구**, 4(3), 545-561.
- 최보운(2008). 부모의 성취압력 및 진로지도가 아동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형운주(2005).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gela, D. B., Kerry, B. B., Kris, C. M. & Kim, D. W. (2006). Junior High School Students, Career Plans for The Future: A Canadian Perspectiv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2, 250-271.
- Bames, P. E. (2001). student career development in grade 9 and grade 12: Can growth be assumed?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Seattle, WA, April 10-4).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2001). Self-efficacy beliefs as shapers of children's aspirations and career trajetories. *Child Development*, 72(1), 187-206.
- Brolin, D. E. (1995). *Career Education: A Functional Life Skills Approach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Collin, A. & Watts, A. G. (1996). The death and transfiguration of career-and career guidance.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ing*, 24(3), 385-398.
-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510-526.
- Hartung, P. J., Porfeli, E. J. & Vondreck, F. W. (2004). Child vocational development: A review and reconside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In Press, Corrected Proof, Available online 11 September 2004.
- Herr, E. L., Cramer, S. H. & Niles, S. G. (2003).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rough the life span: System approach(6th ed.)*. New York: Allyn and Bacon.
- Holland, M. (1981). Relationship between vocational development and self-concept in sixth grad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228-236.
- Isaacson, L. E. & Brown, D. (2000). *Career information, career counseling, and career development(7th ed.)*. Boston: Allyn and Bacon.
- Kelly, K. R. (1993). The relation of gender and academic achievement to career self-efficacy and Interests. *Gifted Child Quarterly*, 37, 59-64.
- Kostelnik, M. J., Whiren, A. P., Soderman, A. K., Stein, L. C. & Gregory, K. (2005).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Theory to practice (4th ed.)*, 유아를 위한 사회정서지도(박경자·김송이·권연희 옮김) 서울 : 교문사(원판 2002).

- Magnuson, C. S. & Starr, M. F. (2000). How early is too to begin life career planning? The importance of the elementary school year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7*(2), 89-101.
- McNair, D. & Brown, D. (1983). Predicting the occupational aspirations, occupational expectations, and career maturity of Black and White male and female 10th grade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2*, 29-36.
- Phipps, B. J. (1995). Career dreams of preadolescent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2*(1), 19-32.
- Stockard, J. & McGee, J. (1990). Children's occupational preferences: The influences of sex and perceptions of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6*, 287-303.
- Zunker, V. G. (2002).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6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 comparative of the differences, relationships and impacts between the self-concept and career development for elementary schoolers by gender.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59(133 boys and 126 girls) elementary schoolers. The instrument used in this study was Jung Jong Jin's(1996) self-concept Inventory and Ahn Chang gyu & Ahn Hyeon eui's(2006) Holland career development Inventor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a SPSS 12.0 program.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mean score of boy(M=54.857, SD=7.593) was higher than girl(M=52.302, SD=8.908) in 'emotional-self'. (2) ① the mean score of girl(M=42.200, SD=5.918) was higher than boy(M=37.372, SD=7.600) in 'gender-related prejudice about occupation'. ② the mean score of boy(M=36.544, SD=5.544) was higher than girl(M=35.008, SD=5.118) in 'autonomy' (3) the revealed that self-concept was highly correlated with boy's( $r=.175\sim.761$ ) and girl's( $r=.199\sim.667$ ) career development. (4) ① the 'academic-self' had an impact of the boy's(5.6%~56.3%) and girl's(8.4%~48.7%) career development. ② the 'social-self' had an impact of the boy's(2.6%~5.9%) and girl's(2.7%~4.3%) career development. ③ the 'emotional-self' had an impact of the boy's(1.9%~37.0%) and girl's(11.2%) career development. ④ the 'physical-self' no had an impact of the boy's and girl's career development. The findings of the study illustrated that the self-concept for elementary schoolers had an impact career development.

**Key Words:** elementary schoolers, gender, self-concept, career development